

뉴스홈 | 최신기사

동맹국 불만 직면 독일, 우크라이나에 군용헬멧 5천개 공급

송고시간 | 2022-01-27 03:03

이윤 기자
기자 페이지

체코, 우크라이나에 포병탄약 4천개 공급

(베를린=연합뉴스) 이윤 특파원 = 러시아와 서방국가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동맹국들의 불만에 직면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군용헬멧 5천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아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5천개의 군용보호헬멧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는 독일이 당신들의 편이라는 뚜렷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르망디 형식 회담'이 이날 재개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유럽 한 복판의 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람브레히트 장관은 다만, 레드라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국제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가의 불가침성과 동맹국의 주권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함과 대공방위 시스템 등 무기 공급을 요구해왔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훈련중인 러시아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와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살상 무기의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독일의 무기수출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긴장 고조를 야기하지 않고 러시아와 대화창구를 열어두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드리 멜리니크 주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dpa통신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거절하는 근거로 역사적 책임을 드는 것은 놀랍다"면서 "역사적 책임은 독일 나치의 점령으로 최소 800만명이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또 한델스블라트에 "우크라이나는 의용대원들을 위해 긴급히 10만개의 군용안전 헬멧과 방탄조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티아네 호프만 독일 정부 부대변인은 "독일은 곧 우크라이나에 야전병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독일의 지원은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실제로 야전병원을 짓는 것은 에스토니아다.

에스토니아는 자국에 배치된 구동독산 무기인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독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국경 정찰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당신을 위한 콘텐츠이 마중,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한편, 베를린을 방문중인 시몬 시코스키 벨섹 폴란드 외무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있어서 독일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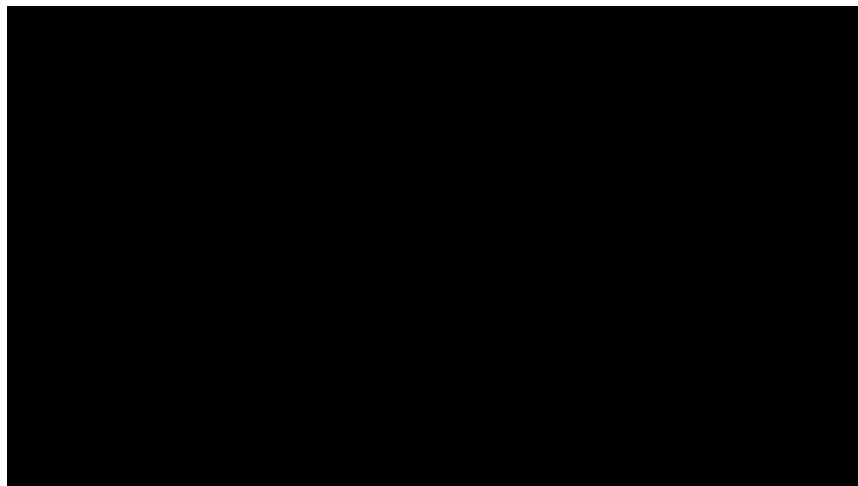
그는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는 많은 이들이 독일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다"면서 "독일을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만큼, 독일은 이 의구심을 부추기지 말고 뚜렷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을 가동하지 말고, 에스토니아에 배치된 곡사포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노르트스트림 2의 운영사는 이날 독일내 가스관 운영 최종 승인을 위해 자회사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독일 규제 당국은 지난해 11월 노르트 스트림 2 운영사가 독일법에 따른 요구사항을 갖추지 못했이라며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4천개의 포병탄약 공급을 승인했다.

yulsid@yna.co.kr



유튜브로 보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7 03:03 송고

#독일 #공급 #우크라이나 #동맹국 #불만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6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8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9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쫘쫘...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동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확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